

펀드조성·직접투자·동반성장 우리은행 '혁신성장 3중 세트'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업의 발굴과 육성은 이제 한국 정부에 발등의 불이 됐다. 장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금융계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은행이 이런 흐름을 반영해 빠르게 혁신기업 발굴 육성에 나서고 있다.

'3조원 펀드' 조성으로 혁신기업 육성 발굴

우리은행은 혁신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선 3천억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모(母) 펀드로 직접 조성하고, 하위펀드 선정과 모집을 통해 펀드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모(母) 펀드에 50% 이상을 출자하는 '앵커 투자자'로 참여한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해 금융 서비스와 경영, 세무, 법무 등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과 기업의 동반성장에 주력

우리은행은 정부 주도 혁신모험펀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2017년 630억원과 2018년 1천600억원을 4차 산업과 청년창업기업 등에 출자하는 등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도해왔다.

현재 우리은행의 참여로 조성된 혁신모험펀드의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이밖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5천억원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서 혁신성장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우수 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1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 2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월 14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출범식을 갖고 '1등 종합금융그룹'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